

# 정신지체 소녀가장 집단성폭행

96.9.3

## 방위병등 4명 구속

경남 함양경찰서는 2일 평소 알고 지내던 정신지체의 10대 소녀가장을 차례로 욕보인 혐의(특수강간)로 육군 ○사단 서하면대 소속 방위병 김준용(21)씨를 붙잡아 군부대에 넘기고 임아무개(19·함양군 서하면)군 등 4명을 구속했다.

경찰에 따르면,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지난 1일 새벽 1시께 이웃 마을 이아무개(17·비중3)양 집에 들어가 잠자던 이양을 오토바이로 납치해 서하면사무소 안면대 사무실로 끌고간 뒤 흥기로 위협해 차례로 욕보였다는 것이다.

이양은 70대 할아버지를 모시고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 소녀가장인 것으로 알려졌다.

창원/김현태 기자